

두산인문극장 2017: 갈등 Conflict

[강연] 고인류 화석에서 읽어내는 갈등의 흔적

이상희

고인류학자. 서울대학교와 미국의 미시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일본 종합 연구대학원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학교 인류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류의 진화에 대하여 계속 연구하고 있다. 고인류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언론 매체에 글을 써왔으며 2015년에는 『인류의 기원』(공저)이라는 책을 냈다. 근래에는 인류의 진화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는 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구상하는 중이다.

*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강연 후 보내드리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고인류 화석에서 읽어내는 갈등의 흔적

이상희(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인류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살아온 인류는 환경과 갈등하고 적응하며 살아왔다. 이해관계가 다른 개인끼리 만날 때에도 갈등과 함께 하며,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끼리 만날 때에도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극히 사회적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사회성을 보인다. 그리고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종들과는 달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면서 극단적인 갈등과 그 못지않게 극단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왔다. 갈등이 없이는 진화도 있을 수 없다. 인류 진화의 역사 속에서 갈등을 읽어낼 수 있을까? 인류 계통의 진화 역사를 몸으로 나타내는 고인류 화석에서 갈등의 흔적을 알아보고 인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상상해 보자.

주요 논의 내용

- 인간의 직립 보행을 둘러싼 고인류학계의 논쟁
- 진화 과정에서 먹이를 둘러싼 인간과 다른 종과의 갈등
- 신체의 발달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머니와 태아의 갈등
- 인간의 식인 행위를 둘러싼 고인류학계에서의 논쟁

고인류학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갈등 중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개입이 많이 된 갈등은 식인 행위에 대한 것이다. “원시인”하면 대중적으로 “식인종”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원시인”은 현재 지구에서 살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고인류 화석으로 알려진 조상 집단이기도 하다.

현대인 중에서는 파푸아 뉴기니 포레 섬에 살고 있는 포레 족이 유명하다. 이들은 죽은 친척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고인을 기린다. 그러나 이 행위는 뼈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고인류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화석이나 인골을 통해서 식인 행위를 알아볼 수 있을까? 대부분은 간접적인 증거들이다. 아시아에서 발견된 호모 에렉투스의 경우, 얼굴뼈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머리뼈 중에서도 아래쪽이 남아 있지 않다. 학자들은 호모 에렉투스가 대후두공을 통하여 두뇌를 먹었기 때문에 얼굴뼈와 머리 아래쪽 뼈가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호모 에렉투스의 식인 행위는 분명하지 않다. 그에 비해 네안데르탈인의 식인 행위는 자료가 뒷받침되는 편이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래된 식인 행위의 근거는 크로아티아의 크라피나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집단이다. 이 화석 집단의 경우, 부위가 맞춰지지 않고, 어린이와 여자가 많으며, 뼈에 칼자국이 나있다고 하여 식인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주장되어 왔다. 그런데 매리 러셀의 연구로 뼈에 나있는 칼자국은 도축용 칼자국이라기보다는 2 차장(시신을 처음 매장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뼈를 깨끗이 손질해 다시 묻는 장례 형식)을 위한 손질에서 온 칼자국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화석을 둘러싼 고인류학계 내에서의 갈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3 년에 남아프리카의 날레디 동굴에서 고인류 화석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호모 날레디라고 이름 붙여진 고인류 화석종은 600cc 이하의 적은 두뇌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연대는 8 만 년 전에서 80 만 년 전까지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적은 두뇌 용량을 가지고 있는 고인류가 깊고 깊은 동굴 속까지 들어가서 죽은 이들을 두고 나왔다는 사실이다. 죽은 개체를 주검으로 특별히 여기고 다루는 예는 8 만 년 이후, 네안데르탈인 정도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주검을 특별히 다루는 행위는 고도의 인지 발달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수준의 인지 발달은 큰 두뇌 용량과 연결되어 왔다. 호모 날레디는 적은 두뇌 용량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이 놀라운 발견이다.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는, 21 세기 최고의 고인류 화석 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호모 날레디의 발견은 무엇보다 고인류학계 내에 새로운 갈등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호모 날레디와 관련한 갈등이 이론의 논쟁이 아니라 과학하는 법, 학자의 자격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이다. 호모 날레디 화석을 발견하고 연구를 주도한 사람은 리 버거 박사이다. 그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화석을 발굴해 가지고 나올 연구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그리고 화석이 발견되는 장면을 스트리밍으로 알렸으며, 손질이 끝난 화석은 스캐닝해서 누구라도 3D 프린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했다. 고인류학계의 관행은 화석이 발견되면 발견한 학자가 정식 논문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 화석에 대해 논문에서 다루거나 언급하는 것조차 경계해왔다. 리 버거의 이러한 방식은 오래된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리 버거 박사의 접근법은 고인류학계를 둘로 나누었다. 한쪽은 여태까지 행해져 오던 학문적 전통을 다 깬 듯한 버거 박사에게 성급하고 얕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한쪽은 중요한 발견이 기존의 연구 관행을 깨고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개하여 권력 외 집단까지 아우르는 혁명적인 행동이라고 환영했다. 호모 날레디라는 놀라운 고인류 화석은 인류의 진화 연구에 큰 공헌을 할 것이 틀림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헌은 그간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좀 더 평등하고 개방된 학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본다.